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399

JCCT 2022-9-49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rs' innovation orient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on corporate innovation behavior

김상화*

Sang-Hwa Kim*

요약 기업은 기술력과 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기업의 다수 역량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구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총 183명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모두인 경영자의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이 기업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마인드와 회사의 핵심 기술 역량 및 기업의 조직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다양한 역량 기반 및 혁신 따른 교육과 R&D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전략지향성과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 기업성과, 경영자의 행동

Abstract Although Companies are forming cooperation and networks with various companies such as technology and R&D, but it is urgently necessary to secure multiple competencies of companies that can effectively adap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rporate strategic orient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on corporate performance targeting SMEs located in the Daegu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 to November 30, 2021 for employees of Daegu companies, and a total of 183 ca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Daegu companies, it was found that the strategic orient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of managers, all independent variabl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It can be seen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education and R&D according to various competency bases and innovations because of the large impact on the manager's mind, the company's core technical competency, and the company's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trategic orient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on corporate performance targeting relevant SMEs tha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Key words : Innovation orient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Organizational Capability, Corporate Innovation Behavior, Managerial Behavior

*정회원, 대경대학교 호텔크루즈서비스학부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8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9일

Received: August 30, 2022 / Revised: September 5, 2022

Accepted: Sept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ksh6502@tk.ac.kr

Dept. of cruise & tourism, DaeKyeung University

I. 서론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에서는 국내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글로벌 기업 삼성, 현대, LG 뿐만 아니라 코웨이, 바디프렌드 등 다양한 중견·중소 기업들도 세계기업관계자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국내기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0여개의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경쟁력을 과시하며 K-중기기업들은 스마트 신기술을 앞세워 기술력을 입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글로벌 시대의 기업들은 극심한 경쟁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요소로써 파트너와의 공존과 지원정책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1].

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 존재한다. 기술혁신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지역 및 국가 수준에도 핵심적인 경제성장 요인으로 인식 된다 [2].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향성은 최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혁신이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혁신의 영향에 대한 관점에서 Hamel[3]은 경영자의 혁신은 조직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성장하는 경영환경과 급변하는 시장 경쟁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과 유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하여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현재는 이러한 경영환경의 교구에 효과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해서 조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갖추어야 한다[4].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혁신역량 및 요인들을 국가적 요소에 맞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 경제에 있어서 기업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전략적 지향성

경영환경에서 기업들은 경쟁기업들과 경쟁우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 및 기술의 수준이 좋은 품질을 구매하는 것을 기대한다(Quand and Enew, 2003). 기업에서 전략적지향성이란 미래의 기회를 준비하고 주어진 경영환경에 적응하며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술형 기업은 기술혁신, 개발,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활동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한다. 전략적지향성은 기업이 지속적이며 혁신성과를 내기 위한 기업의 적합한 행동의 동기가 되는 전략적 행동을 의미하며, 기업혁신과 관련한 전략적 지향성은 크게 고객, 경쟁자, 기술지향성으로 나누어진다 [3]. [4]는 전략적지향성은 기업에게 가치창출을 위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 품질을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여 경쟁자의 노력보다 체계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5] 소비 지향성은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2. 기술혁신역량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뒷받침해주는 기술혁신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기술혁신의 성공을 넘어 기업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과정도 무시 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술혁신은 [6]에 의하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기술, 시장, 공급자, 기업구조, 기술혁신방법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7]는 기업이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기술혁신 등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개발 및 실용화 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기술혁신역량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술혁신은 제품혁신, 공정혁신으로 나누며, 경영능력은 마케팅, 조직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기술혁신역량에서 기술혁신역량과 기술혁신역량 활동은 연구자들의 오랜 관심 분야이며, 기술혁신능력 또는 기술혁신 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8].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경쟁우위 전략의 근본이며, 혁신성과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기술혁신역량이 기술혁신성과 및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조직역량

조직역량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9]은 기업의 여러 가지 자원 중 경쟁기업에 비해 높은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보며, 경쟁우위를 가진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10]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는 조직적 특성 또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조직역량을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자원을 보유하거나 특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9]은 국내 제조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역량요인으로 회사의 R&D 지출 비용, 석사 학위 이상 전문인력, 회사의 조직구조, 회사의 글로벌 역량, 회사의 문화와 통제활동, 조직구성원의 성향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조직의 규모나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대기업 보다는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의 혁신역량에 있어서 CEO와 종업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CEO의 혁신성과 종업원의 혁신성을 연구 변수로 채택하였다. CEO의 혁신성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회사 전략을 기획하여 전달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11]. 또한, 종업원의 혁신성이 주요한 요소이다. Burcharth et al.은 개방혁신 관련 조직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지식에 대한 종업원의 태도를 우호적으로 만들며 종업원의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12]. 종업원의 혁신성은 종업원의 개발에 대한 투자 및 만족도가 조직의 가치 시스템을 반영하는 종업원 중심의 조직분위기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조직역량은 고객 가치를 높이거나 그 가치의 전달과정을 효율적으로 높이며, 이러한 능력이 기업의 신규사업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 기업성과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목표 달성여부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업성과 평가는 성장성과 수익성 같은 재무적 지표를 바탕으로 기업성과의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13]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최고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측정하며, 재무적 성과지표로 수익률, 판매액, 이익창출로 활용하였다. [14]은 균형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재무적 지표 뿐만아니라 비재무적 지표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무적 관점 이외에도 고객만족, 내부 프로세스 확립, 교육 및 성장을 기반으로 성과관리를 해야한다.

[15] 재무적인 성과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률 등 경영활동 결과에 대한 수치적인 성과이다. 반면, 비재무적인 성과는 수치로 나타난 것 이외의 성과들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혁신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및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16].

[11]는 혁신을 공정, 재료, 시장 및 조직 등 생산수단의 결합을 통하여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마케팅 등 판매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전략적 지향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혁신은 국가차원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며 연구개발능력, 학습능력, 마케팅 능력, 조직 관리 능력 생산능력 등의 다양한 구성요인을 제시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조직역량은 조직의 시스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17] 조직역량이 경제, 사회적 성과 등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역량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클 때, 기업의 경제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를 증명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1) 변수 선정

본 연구는 기업의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구 성서산업단지 기업, 달성산업단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고,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18]은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 기술협력, 기술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의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15]는 최고경영자의 전략적지향성이 강할수록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정의 관계를 보임을 밝혔다. 전략적지향성은 기업 혁신역량의 한 요인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14]가 전략적 추구와 기업의 재무적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에서 전략적 추구의 개념으로 경쟁 지향성, 혁신 지향성, 관계 지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가설 1: 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adjimanolis(2000)는 기술혁신능력인 기술사업화는 연구초기부터 신기술을 가공, 판매로 연결하기위 위하여 제조, 생산, 마케팅, 유통 활동까지의 연속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Vorhies and Mason(2009)는 기술혁신능력인 기술사업화 및 혁신역량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Herron and Robinson(1993)은 기술혁신역량인 기술사업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산성, 비용, 시간 등을 정성적 지표로 사업화 성과를 측정하였으며 기술혁신능력은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가설 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역량은 기업 조직의 시스템 및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성과에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춘우[17]는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고속성장한 대기업들은 최고를 향한 집단적 에너지를 형성하고 발전된 조직문화적 역량을 축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가설 3: 기업의 조직역량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모형

설정된 연구가설을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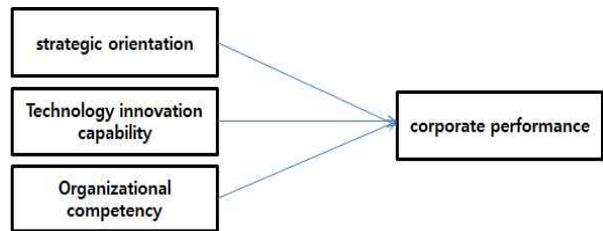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표 1. 변수의 측정문항과 출처

Table 1. Variable measurement items and sources

요인		측정문항	출처
독립	종속 기업 성과	매출액증가율 시장점유율 순이익 증가율	Damanpour (1991), Hanks(1994), 한희선(2019)
	전략 적지 향성	• 고객지향성에 초점을 두고 거래 업체의 신뢰관계 구축 • 고객지향성에 초점을 두고 거래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 신기술창출과 기존기술의 활용 연계성 • 신기술에 대한 기업의 역량정도	권주형(2019), 신진교(2009), 한희선(2019)
	기술 혁신 역량	• 다양한 기술을 충분히 보유 •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경험의 풍부성 • 기술개발을 위한 자원의 최대 활용 •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장 비를 확보	Cohen(1995), Jasen et al(2006), Yam et al(2004), 한희선(2019)
조직 역량	• 조직의 활발한 교류 및 의사소통 • 지식이나 기술을 적극적 수용 여부 • 외부조직과의 협력에 따른 성과 발생 보상 • 외부조직과 협력체계 구축 장려	Hofstede (1984), Sharma(1994), 박경희(2021)	

자료 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온라인, 직접 배부, 이메일 등 간접조사를 병행하여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을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Table 2. Variable measurement items and sources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Cronbach's alpha
전략적지향성	고객지향성	0.931	.264	.002	.149	0.932
	거래업체 신뢰관계	0.854	.218	.106	.038	
	신기술창출	0.823	.019	.038	-.047	
	기업의 역량	0.817	.017	.035	0.31	
기술혁신역량	기술혁신	.301	0.871	.068	.061	0.865
	기술협력	.285	0.819	.153	.157	
	혁신프로세스	.076	0.793	.087	.092	
	기술개발	.071	.0781	.069	.079	
조직역량	조직의 활발교류	.258	.423	0.843	.072	0.798
	기술·지식	.183	.268	0.759	.019	
	조직협력	.079	.152	0.714	.076	
	외부협력	.067	.127	0.709	.072	
기업성과	매출액증가	-.008	.149	.324	0.812	0.741
	시장점유율	.056	-.025	.167	0.745	
	순이익증가율	.032	.236	-.083	0.709	
고유치(eigen value)		2.273	2.058	1.796	1.717	-

중심으로 설문에 응답토록 하여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소기업 중 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지는 총 226부가 수거되었는데 그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83부의 설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대표성이 있으며 과거 연구들을 정리하여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 독립변수인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으로 이러한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로 정한 기업성과 Kanter[18], 이상훈·조태준[1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변수들에 대한 각 요인별 신뢰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반복 측정을 하였을 때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측정의 일관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 각 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의 수치는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경영자의 혁신지향성의 한 요소의 요인적재량이 0.4 이하로 낮게 나타나 해당 항목을 제거하였다.

타당도 분석을 위해 SPSSWIN v.22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에

의한 varimax 요인회전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면 0.7 이상을 보여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은 기술혁신역량과 조직역량, 기업성과에 각 1%의 통계수준에서 긍정적이고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기술통계량 및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variables

변수	평균	1	2	3	4
1	3.24	1			
2	3.42	.696**	1		
3	2.69	.142	.256**	1	
4	3.25	.632**	.682**	.235**	1

**=1%의 통계수준에서 유의함

2. 회귀분석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변수의 내적 일관성과 구성항목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인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고,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 간의 상호 영향이 기업성파에 미치는 차이성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다중 회귀분석 결과
Table 4. Multiple Regression Results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수준 (p)
	B	표준 오차	베타(β)		
전략적 지향성	.225	.091	0.212**	2.358	.002
기술혁신 역량	.257	.084	0.247**	2.798	.0005
조직역량	.117	.103	0.109*	1.115	.0266
R2	.368				
F값	4.865**				

*p<.05 ** p<.01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들을 점검하기 위해 잔차산점도와 정규확률분포를 그려 본 결과, 잔차들이 등분산성과 정규분포를 이루었으며, 분산팽창요인(VIF)값도 1에 근접한 1.223로 나타났고, 공차도 0.64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연구모형이 다중회귀분석의 가정들을 충족시켰다. <표 4>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기업성파에 대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결과 3개의 독립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통해 변수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의 경우(β=212)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전략적지향과 기술혁신역량이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조직역량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109, t=1.115).

먼저 독립변수인 경영자의 혁신지향성과 종속변수 기업성파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체 모형의 결정계수(R-Square) 값은 0.751로 나타나 종속변수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은 562.618이고 F값에 대한 유의수준 확률값이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기술혁신역량은 기업성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F값 2084.591 나타났다. 조직역량은 기업성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통해 유의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업성파에 대해 기술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결과를 분석하면 <표 9>과 같다. 가설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표 5. 가설분석결과
Table 5. Hypothesis analysis result

가설내용	채택여부
가설 1 :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은 기업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기업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 중소기업의 조직역량은 기업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V. 결 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전 세계는 빠르게 변화되고 경쟁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업, 저출산, 고령화 시대, 기술 경영, 품질 역량, 네트워크 경영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창조해야 한다.

최근 기업의 전략적 지향성과 기업 성공요인을 밝혀 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전략적 지향성을 보유한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의 협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려운 글로벌 기업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을 도출하고 독립변수들이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독립변수 중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 모두가 기업성파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전략적지향성의 하위요인들(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은 기업성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윤동주, 정대율(2014)의 연구에서 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의 IT자산기반 역량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CRM역량, SCM역량, 프로세스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성파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은 조직과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이 되며 새로운 에너지원

이다. 즉, 연구개발, 학습, 기업혁신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영, 기술, 외부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간 융합으로 이어져 초융합의 지식과 데이터를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많은 연구자는 기술혁신역량이 높은 경영 성과를 높인다고 하였으며, 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혁신 향상을 위해서는 R&D교육, 연구개발 투자, 타기업 사례분석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술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화 역량을 향상 시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천희, 2021).

조직역량은 회사의 R&D 지출비용, 회사의 글로벌 전략, 석사학위 이상의 고급인력, 회사의 문화, 조직구성원의 성향 등이 있다[17]. 이러한 역량 및 CEO의 혁신성, 종업원의 혁신성 등을 활용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선행연구와 비슷하게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연구와 비교해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을 세분화 해서 이들이 중소기업의 기업성과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지향성이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은 기업의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모두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조직역량은 조직 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조직의 규모 및 인프라 구축, 협력적 분위기, 자유로운 의견 교환 분위기, 혁신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은 최근 창조경영, 경제를 필두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혁신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크게 기술 혁신 창출요인과 기술혁신 촉진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술혁신 창출요인은 기업환경, 자원역량, 기업전략 등이 해당되며 기술혁신 촉진요인은 조직구조, 문화 그리고 경영자의 리더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21]. 결국 CEO의 혁신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에 미치는 정(+)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의 중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기업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전 단계이지만 한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들의 기업성과는 향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22].

또한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적지향성, 기술혁신역량, 조직역량의 강화를 통한 효과적 기업 운영 및 혁신행동의 개선도 가능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명확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중견기업 특색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특수사업 부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23].

본 연구는 의미있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향 후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샘플 수집의 어려움이 있다. 중견기업의 기업성과에 관한 설문지 구성에는 매출 증가율, 지식재산권 제품의 등록 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의 경영자, 임원, 경영기획실 부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반적 정의는 최근 업종에 따라 변동이 생겨 명확한 파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변수들이 많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 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기업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더욱 유익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S. Kyung(2021). "A Study on Impact of Innovative and Network Competency of Small-Medium Enterprises on Performanc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4(2), 363-383.
- [2] S. M. Kang(2021)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ooperation activities on the innovativ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Daegu: Moderating effect of

- technologic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21(4). pp.404-413, 2021.
- [3] J. S. Kwon(2012).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market-oriented informat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5(1): 501-527.
- [4] Hurley, R. F., & Hult, G. T. M. (1998). Innovation, market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n integration and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marketing*, 62(3), 42-54.
- [5] Jaworski, B. J., & Kohli, A. K. (1993). Market orientat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arketing*, 57(3), 53-70.
- [6] Romijn, H., & Albaladejo, M. (2002). Determinants of innovation capability in small electronics and software firms in southeast England. *Research policy*, 31(7), 1053-1067.
- [7] Damanpour, F., & Evan, W. M. (1984).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performance: the problem of “organizational la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92-409.
- [8] Cassiman, B., & Veugelers, R. (2002). R&D cooperation and spillovers: some empirical evidence from Belgium.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1169-1184.
- [9] Y. S. Choi & U. Lim(2017). Contextual Factors Affecting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SMEs in Korea: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Sustainability*, doi:10.3390/su9071193
- [10]M. H. Choi(2014).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competences of social enterpris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Histology*, 11(3), 135-157.
- [11]Kanter, R. M, “When a thousand flowers bloom: Structural, collective, and social conditions for innovation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 169-211, 1988.
- [12]D. C. Seol & C. W. Park. “A Study on the Factors that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 Affects the Knowledge Management Performance of Companies: Focusing on the R&D Project of Government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es,” *Venture Startup Research*, 15(4), pp. 193-216, 2020.
- [13]R. S. Kaplan & D. P. Norton.(2005). *The Balanced Scorecard :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 [14]H. S. Han(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orientation, technological cooper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SMEs: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15]S. D Lee(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CEO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 Technology Innov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Kyungso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thesis.
- [16]U. Lichtenthaler(2016). *Toward an Innovation-based Perspective on Company Performance*. *Management Decision*, 54(1), 66 - 87.
- [17]B. J. Choi, D. S. Park, S. H. Jung, Y. G. Lee, “Networks,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es,” *Journal of the Korean Business Association*, 26(12), 3115-3146. 2013.
- [18]G. Y. Kong, “The Effects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y Management Activit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and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Korean Shipbuilding Equipment Compan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Technology Business Policy Major*, Ph.D. thesis, 2014.
- [19]Hadjimanolis, A. (2000). A resource-based view of innovativeness in small firm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2(2), 263-281.
- [20]Morgan, N. A., Vorhies, D. W., & Mason, C. H. (2009). Market orientation, marketing capabilities, and firm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0(8), 909-920.
- [21]Herron, L., & Robinson Jr, R. B. (1993).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81-294.
- [22]C. W. Lee. “Organizational Culture of Korean Companies: Organizat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Shared Value DNA, Examination of Korea’s Growth Engine”, January 1, 2014.
- [23]S. H. Lee, T. J. Jo,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rafting and Innovation Behavior of Workers: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and Social Disturbance,” *Lifelong Education and HRD Research*, 16(2), pp.49-81, 2020.
- [24]Damanpour, F. (1991). Organizational innovation: A meta-analysis of effects of determinants and moderato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3), 555-590.
- [25]Chandler, G. N., & Hanks, S. H. (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 [26]J. H. Kwon & S. H. Kim(201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 and innovation orientation of socially innovative enterprises. *Innovative Enterprise Research*, 4(2), 73-84.
- [27]J. K. Shinm(2019) R&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the role of strategy and organizational culture. *Management Research*, 22(2), 393-424.
- [28]Dougherty, D. E. B. O. R. A. H., & Cohen, M. (1995). Product innovation in mature firms. *Redesigning the firm*, 87-115.
- [29]Vaccaro, I. G., Jansen, J. J., Van Den Bosch, F. A., & Volberda, H. W. (2012). Management innovation and leadership: The moderating role of organizational siz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9(1), 28-51.
- [30]Yam, R. C., Lo, W., Tang, E. P., & Lau, A. K. (2011). Analysis of sources of in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An empirical study of Hong Kong manufacturing industries. *Research policy*, 40(3), 391-402.
- [31]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Vol. 5). sage.
- [32]Sheth, J. N., & Sharma, A. (2008). The impact of the product to service shift in industrial markets and the evolution of the sales organization.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7(3), 260-269.
- [33]S. J. Lee & K. H. Park. (2021). "The effect of open innovation capacity and organizational capacity of SMEs on corporate performance".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19(11), 235-246.
- [34]D. J. Yoon & D. Y. Jung(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a company's customer orient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on between core resource holding capacity and process efficienc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9(1), 59-84.
- [35]C. H. Lee & S. W. Kim & D. M. Lee(2020). The effect of absorption capacity of SMEs on R&D capac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Engineering*, 25(4), 139-155.
- [36]H. S. Im & H. J. Im. (2013). A Study on Corporate Innovation Success Factors, Innov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For POSCO Group Companies," *Productivity Review* (formerly Productivity Research), 27(4), pp 233-258, 2013.
- [37]S. M. Park(2012). After the announcement of measures for mid-sized companies, supplementary and additional tasks were draw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ervice.